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서거석 교육감 완주지역 학부모들 대상 특강 '큰 호응'... 청렴·민주·인권·학력 등 제시

서거석 교육감이 22일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완주 지역 학부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미옥)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청렴 △민주 △인권 △학력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특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교육을 살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학부모는 "이기가 계속 시험을 안 보자. 중 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50점 맞고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면서 "공교육만으로 성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 등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여달라", "학부모들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 "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달라", "학교의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해달라" 등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이어서 교육감은 공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했다

또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실력과 인성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교육 주체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상담 기능 강화 주문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 교육감의 완주 방문은



서거석 교육감이 22일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완주 지역 학부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로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했다

또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실력과 인성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교육 주체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상담 기능 강화 주문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 교육감의 완주 방문은

시·군 순회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서 전북교육청과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지난 9월 8일 교육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에 두고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상호 교류 협약을 맺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공동체로서의 교류 활성화

전주교대, 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교육 분야 협력 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약속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전북 교육공동체로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22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21~22일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각각 교육·연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과학·수학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지원 △과학·수학 교육 프로그램 자문 및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 연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진행 △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 및 교육 관련 정부정책 등 정보·인력 교류 △교육 연구 활동의 장소 제공에 관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은 두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전대 입사지원서 공모 시상식 개최

전주전대 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입지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1일 2022학년도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취업특강과 연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통해 서류전형 대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실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입사지원서 공모전 평가항목은 △입사 희망기업 및 직무 이해도 △문항에 대한 이해 및 표현의 적절성 △직무경험 및 전문성 등이다.

이날 대상(1명·30만원), 최우수상(2명·20만원), 우수상(2명·15만원), 장려상(2명·10만원) 수상을 통해 취업활동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임수희 대학원생 문필재 대학원생

우석대 임수희·문필재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우석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임수희(박사과정 3차수)·문필재(박사과정 4차수) 대학원생은 지난 17~19일까지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에서 열린 ISAAC 2022 국제학술대회에서 각각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임수희 대학원생은 공하성 주임교수와 함께 '제조사별 방역도료에 따른 자작나무 합판의 방역성능'을 문필재 대학원생 또한 '베타버스 적용 시 소방안전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을 제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2020년 신설된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안전공학과는 각종 국제학술대회와 논문 공모전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공하성 주임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오늘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도내 102곳서 1학년 1만3314명·2학년 1만3015명 응시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3일 치러진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전국학력평가에는 도내 102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3314명, 2학년 1만3015명이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고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마지막 전국단위 평가로, 진급을 앞둔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학습을 평가하고, 새로운 학습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성적 처리 결과는 12월 12일부터 안내하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가 함께 제공된다.

한편, 코로나9 확산 등으로 평가 당일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학생은 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www.jte.gakr/jiro)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www.gsatr.kr)·학부모, 교사, 학생·문제지 자료실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연말 공직기강 확립 나서

도교육청,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이에 음주운전 등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자료들을 각급 학교를 비롯한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형중 알고율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교훈삼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사적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교육

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30일부터 '평생학습축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평생학습 역량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축제 한마당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전북대 평생교육원 놀마음악트를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축제에서는 전시 분과에 30개 반 230명, 공연 분과 22개반 310명이 참여해 그동안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다양한 공연과 전시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부대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양병호 원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70년의 발자취 공유, 미래 100년 준비'

전북대 사학과 70주년 행사 성료... '대학 발전 밑거름 노력 경주'

전북대학교 사학과(학과장 장준갑)는 지난 18일 뉴시스콘서트센터 동행홀에서 '사학과, 그 역사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문과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학과 개설 7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단절된 선후배 사이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과의 역사를 재음미하는 소중한 기회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에 따르면 사학과는 전북대학교 설립과 행적을 같이하는 전통을 가진 주제이기에 코로나19의 여진이 남아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립 70년의 역사와 의미를 소중하게 새기고 과거의 발자취를 오늘에 공유함으로써 사학과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목표와 신념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장준갑 학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



전북대학교 사학과는 지난 18일 뉴시스콘서트센터 동행홀에서 '사학과, 그 역사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해 선후배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향후 사학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학인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아가 전북대 발전의 밑거름으로서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사학과는 지난 1951년 설립된 후 1952년 첫 신입생을 맞아 지금까지 2,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은성 기자

AI 기반 피싱 예측 따른 사전 예방 서비스 제시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ICT멘토링 공모전 '은상'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피카소' 학생 팀(유승영, 김소연, 김유경, 이든)이 최근 열린 2022년도 최인공지능 ICT멘토링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피카소팀은 'AI 기반 피싱 예측'에 따른 사전 예방 서비스는 금융/핀테크



주제영역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에 대한 실용적 대책을 찾기 위해 사전에 학습된 AI 기반 피싱 예측 모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메신저(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사

전 학습된 AI 기반 피싱 예측 모델을 통해 메신저 피싱 여부를 판단, 사용자에게 팝업 경고 등으로 알려주는 '피싱 예방 서비스'다.

특히 딥러닝 모델 학습에 LSTM을 사용해 피싱 예측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사용자 안드로이드 화면에 실시간으로 경고 팝업을 나타내 다양하

고 고도화되는 메신저 피싱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유승영 학생(4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소한 연구 분야에 대한 자문과 프로젝트 진행에 큰 도움을 준 최선우·유철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피싱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든 학생(4년)은 "한이름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팀원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2020년 취업통계현황에서 취업률 81.0%를 기록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정은성 기자